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년 경-1455년), 프라 필립보 리피(Fra Filippo Lippi, 1406년 경-1469년), 동방박사들의 경배, 목판에 템페라, 지름 137.2cm, 국립미술관, 워싱턴, 미국

성화 해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고 있다. 왼쪽의 허물어진 건물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낡은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른쪽 상단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도시 베들레헴과 시민들이 묘사되어 있다. 마구간의 지붕에 앉아 있는 공작은 불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입당송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 주 하느님, 주님의 공정을 임금에게, 주님의 정의를 왕 자에게 베푸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주님의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
- 그의 시대에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환호송 마태 2,2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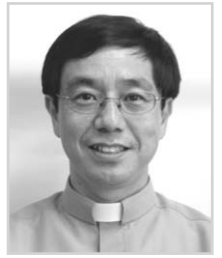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예물을 가지고 왔노라.

그분의 별을 찾는 사람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지금으로부터 30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 어느 해 겨울 방학에 서울역 앞 양동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동에는 몇 분의 수녀님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님들도 처음에는 그곳 사람들의 텃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취조차 없어졌지만 당시 서울역 앞 양동에는 해방이후 형성된 유곽이 즐비했고 판자를 세워 지은 집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락 여성, 걸인, 고아, 장애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양동을 처음 찾았을 때 ‘서울에 이런 곳도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고 버림받았으며 가난과 병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작은 희망조차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수녀님들이 이들의 벗이 되어 함께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양동에서 만난 맹인 할아버지가 한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하느님이 누구인지, 정말 계신지도 몰라. 그런데 수녀님들이 우리들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사시는 것을 보면 하느님이 계신 것 같아. 수녀님들이 믿는 하느님이니까.” 그 당시 양동 사람들에게 수녀님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분의 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도 우주의 끝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그 많은 별 중에서 그분의 별을 발견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자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역사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끈끎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머나먼 동방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라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법석을 떨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 있었지만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나요? 오히려 지척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분의 별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별을 못 보았을까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거나 별을 찾는데 게을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손이 닿을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실 곳, 베들레헬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별들 중에 그분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저절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요 길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생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나와 이웃 안에서 그분의 별을 자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이삭

착한 사람들



서영남 베드로 | 민들레국수집

답 육개장을 끓였는데 우리 손님들이 참 맛있게 드십니다. 오늘 반찬은 총각김치와 무채나물, 봄동겉저리, 어묵볶음, 콩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볶음입니다. 후식은 요구르트를 드렸습니다.

배추김치를 그냥 상에 내려다가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볶았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만들면 김치만 낼 때보다 세 배 정도 김치가 더 들어가지만 우리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민들레국수집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치아가 좋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도 약간 볶아서 부드럽게 해서 드리면 잘 드십니다.

봉사하러 서울에서 먼 길을 오신 루치아 자매님이 좋은 고춧가루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민들레국수집 봉사자들 중에 계란말이를 제일 잘 하시는 아우구스띠노 형제님이 오셨기에 특별히 계란말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무렵에 봉사자들과 우리 손님들을 위한 특식으로 콩치조림을 했습니다. 생선아주머니가 만 원어치 샀는데도 덤으로 일곱 마리나 더 주십니다. 무를 깔고 조림을 했습니다. 봉사자들도 맛있게 드셨고, 우리 손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콩치조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손님들 모두에게 대접해야겠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밥과 반찬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데 손님이 많이 오셔서 아무래도 밥이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마침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아녜스 자매님이 시장 교우들과 봉사하러 갔는데 고마운 분이 점심을 사셔서 준비한 밥과 소고기 불고기가 그대로 남았다면서 가져오셨습니다. 온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급히 불고기를 데워서 상에 내었더니 손님들이 잘 드십니다. 착한 사람들 덕분에 민들레국수집이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님들도 참 착합니다. 반찬이 수북하게 담겨 있으면 양껏 드십니다. 그런데 적게 담겨 있으면 다음 사람도 먹어야지 하면서 조금만 가져가던가 아니면 아예 담지 않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며칠 전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밥을 참 많이 드십니다. 오늘은 국도세 그릇이나 드셨습니다. 쉼 곳을 찾아 떠나면서 ‘오늘은 어디서 자나’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내일과 모래는 국수집 문을 열지 않는데 어찌지요? 했더니 ‘내일은 굶어야 하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별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자발적인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별입니다. 천사가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듯 우리도 올해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갖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한 삶입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생 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가톨릭 교리서 2258항, 생명의 선물 5항).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선택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생명은 분명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 생명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지니지 못한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특별함을 지니고 있기에 신성하고 존엄합니다.

인간 생명은 이 세상 삶을 통해 꽃피고 열매 맺음으로써 자기 완성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나의 생명 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함께 잘 가꾸어 열매를 맺으라고 불리움 받았습니다. 어떤 생명도 그 소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고 작고 약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곳을 통해서 2009년 한 해 동안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의 주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교구장 신년대담(요약)

먼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추기경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쁜 나날을 보낸 이들이 많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善)으로 이끄시기 위해 마련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심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하기를 희망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정하신 ‘바오로의 해’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오로의 해’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바오로의 해를 제정하신 교황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의 해를 맞아 그동안 성당을 멀리 했던 이들이 다시 성당을 찾은 것이 가장 기쁩니다. 바오로의 해는 바오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바오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교를 세계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넓게 보자면 바오로 사도 덕분입니다. 남은 반 년도 뜻깊고 은혜로운 ‘바오로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올해는 한국 천주교회 ‘103위 시성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그리고 증거자 최양업 신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교황청 시성성에 시복을 청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이들의 순교와 시성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리가 시복시성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성인들을 현양하자는 뜻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겠다는 뜻이 더 큼니다. 신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분들 발자취를 살펴보면 따를 점이 무척 많습니다. 피흘리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겪게 되는 숭한 어려움을 바로 이 순교정신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시복시성운동의 취지입니다. 이 운동의 본래 뜻을 잘 새겨야겠습니다.”

난자 제공과 배아 조작실험을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가톨릭교회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로 많은 이

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 출발하는 생명 탄생의 과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지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악용될 수도, 선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문명은 분명히 큰 장점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릇된 인간 욕심으로 인해 악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난자를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생명을 모독하는 것으로,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살 역시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느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도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한다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을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다면 이들을 위한 자신의 사명까지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자살의 유혹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우리사회 가정에는 영적·정서적 측면을 뒤로 한 채 물질적 면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사랑이 더해져야 하는 공동체이죠. 자녀가 한 명 있을 때와 둘이 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행복하려면 자녀가 많아야 합니다. 이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부부당 1.2명입니다. 2명의 부부가 1.2명 밖에 낳지 않는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인구감소로 이어집니다.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이나 셋은 낳아 저출산을 극복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이혼율 역시 무척 높습니다. 가정해체, 가정파괴의 주요인인 이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혼은 부부 각자만을 생각한 이기심의 산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이혼에 따른

불행한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결심으로 이혼을 감행합니다. 부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순전히 피해자일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은 겁니다. 이혼하려는 부부는 아이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세요. 자녀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온 인류가 다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골고루 나누기만 한다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인류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굶는 것은 몇몇이 식량을 독점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눔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류가 한 배를 탔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 인류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전 세계적 경제위기 역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선행을 품앗이할 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IMF 경제위기를 이겨낸 훌륭한 민족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최근 북녘 식량난이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몫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방향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느끼는 가장 애뜻한 것이 연민의 정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고귀한 감성이죠. 인간은 모두 연민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연민의 정은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하기 쉽습니다. 선을 행할 때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난한 이에게 베풀면서 유세를 떠나라면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받는 이 인격에 손상을 주는 것이니까요. 상대 인격을 존중할 때 베푸는 것은 베품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받는 이가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짝사랑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호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준다고 해도 상대방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상적인 상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남북관계 역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봅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진단 속에서 계층간, 지역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왜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는 부모 말을 듣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을 때 아이는 반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대화가 없기 때문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선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선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선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는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사관계가 지 금처럼 꼬인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입니다. 서로가 말을 믿지 않으니 영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관계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요. 평소 상대방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권위의 뿌리는 신뢰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두가 신의를 지킴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의 해, 추기경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평화방송·평화신문 시청취자, 애독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청하겠습니다.

“제 소망은 국민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느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행복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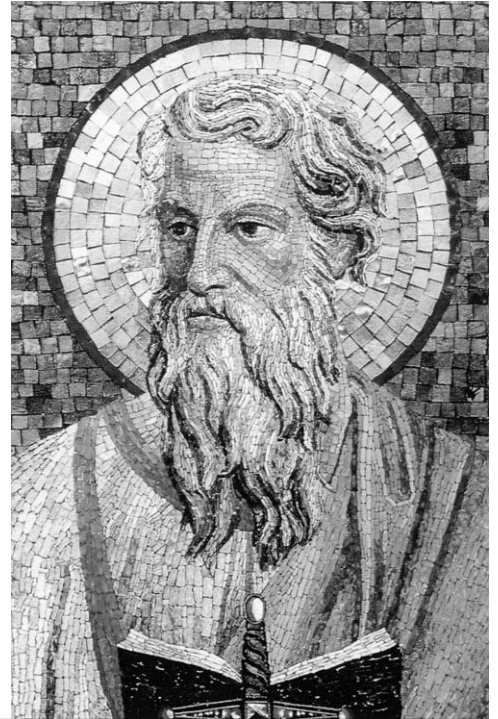
평화방송·평화신문 시청취자와 독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더불어 모든 이가 경제적으로도 좀더 여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2008년 6월28일~2009년 6월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신자들이 성 바오로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고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오로 해' 기간 동안 매월 첫째 주 서울주보에 바오로 사도의 생애, 서간, 사상, 영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사도 바오로와 협력의 기술

놀라운 복음 선포의 성과를 이룬 바오로라는 인물을 오늘날의 시대 흐름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진취적이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혼자서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결하는 열정적인 수완가의 이미지로 옷입히기가 쉽다. 이렇게 덧입혀진 이미지로 그는 다른 이와 '함께함'의 과정없이 홀로 복음을 선포한 거대한 외딴 섬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가 유산으로 남겨준 서간들을 주의해서 보면 바오로는 외로운 항해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생각과 삶을 나누며 통교와 협력을 살줄 알았던 공동체성이 강한 사람이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곱 개의 바오로의 친서 중에,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로마 공동체에게 보낸 서간을 제외한 여섯 개의 서간에서 바오로는 발신자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다른 협력자들의 이름을 동시에 열거한다(1테살 1,1; 1코린 1,1; 2코린 1,1; 갈라 1,2; 필리 1,1; 필레 1 참조). 서간의 서두에서 뿐 아니라 본문 안에서도 자주 자신의 선교 협력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복수로 나의 '협력자들'이라는 표현을 한다. 이는 바오로의 선교 활동이 혼자만의 힘이 아닌, 다른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는 협력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유일한 삶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모든 유효한 에너지를 하나로 모은다.

바오로가 서간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단수 대신 '우리'라는 복수를 자주 사용하는 것에서도 그의 사도직의 결과가 바오로라는 인물이 단독으로 이룬 개인적 영웅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동체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 바오로는 상호 의존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는 팀워크(teamwork)의 효과를 알고 사도적 책임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가난하고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다.

그는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 참여의식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바오로가 여러 번 공동체 안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도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성장시킨 협력의 정신이다. 이는 곧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각자 받은 달란트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줄 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바오로는 이천 년 전에 이미 터득했던 것이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의 중심에 놓고, 개인적 관심사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 온 몸으로 세상

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안 사람이다. 이 점이 바로 그가 하느님의 진정한 협력자가 되게 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명을 수행하도록 인도한 내적 힘이다.

바로로의 ‘함께함’의 능력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개인의 지나친 능력 강조가 협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효율성과 생산성이란 이름 아래 다수의 생각을 모으는 것보다 힘있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믿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몰랐던 고대인 바로로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함께함’의 힘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자신의 삶으로 설득력있게 말한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에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곧 지위와 지식의 수준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이는 모두 참여시키는데 이는 당대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진보적인 것이었다.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각 사람의 가치가 그가 속해있는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기계적으로 규정되던 세상에서 바로로의 개방된 자세는 하나의 도전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외적인 요인으로 차별하는 것은 복음 정신과 어긋나는 것이기에 바로로는 당대의 사고방식을 거슬러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는 복음 선포를 위해 협력하는 행위를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2코린 6,1).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공동체 건설을 위해 사람들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재표현된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2코린 1,24).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느님의 협력자가 된 그는 주님의 종이며 사절이고 관리자다. 이 때문에 바로로의 모든 관심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길을 모색한다. 협력자의 도움은 바로로에게 있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는 기회가 된다. 적대자들의 방해, 육체적 병고, 조직적·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갓 태어난 공동체의 약한 신앙 때문에 선교활동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협력자들의 손은 그의 활동을 연장하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

바로로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일한 과정과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협력은 오로지 복음이라는 한 방향으로 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도로서의 바로로의 위대함은 한편으로는 부르심에 충실하게 대답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이들 안에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 스스로가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도록 이끈 리더십이다. 사심없는 리더로서 그가 사도직의 동료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적자세다. 하느님의 협력자는 자기 것만을 찾는 이기적인 마음을 지녀서는 안되고 하느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필리 2,20-21). 그리고 투명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2코린 12,15-18)고 권고하며 충만한 사도적 열정이 선교활동을 이끄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일러준다(2코린 8,22-24 참조). 바로로의 모든 관심은 이렇듯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이상적이다. 바로로는 그들이 하느님께 속한 사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믿으며 복음을 위해 함께 운명을 나누는 동료로 받아들인다.

‘협력자’라는 말이 바로로의 고유한 용어라고 할 만큼 집중적으로 바로로 서간에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언제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도적 소명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로가 말하는 협력자의 사도직이 반드시 드러나는 활동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병이 나서 한동안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파프로디토스를 “그는 나의 형제이고 협력자이며 전우입니다”(필립 2,25)라고 소개한다. 곧 한 믿음, 한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 존재 전체를 몰두하는 것이 바로로에게 있어 진정한 협력자의 개념이다.

바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악조건 속에서 광대하고 효과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중의 하나는 바로 하느님을 위해 살고자하는 관대하고 순수한 영혼들을 발굴하여 함께 일하며 살아간 능력이다. 바로로는 하느님의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 언제나 일치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일치와 통교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



민남현 엠마 수녀
성바로로딸수도회

알림

오늘(1월4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시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일입니다.

1월11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구역(반)장을 위한 미사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1월6일(화)	신도림동성당	연희동·명일동성당
1월7일(수)		봉천동·역삼동성당
1월8일(목)	서초동성당(10시)	혜화동성당
1월9일(금)	창동성당	오금동성당(2시30분)

'서울주보'와 '그대 지금 어디에' 합본 보급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2008년도 '서울주보' (1만 원)와 월간 선교지 '그대 지금 어디에' (3천 원) 합본을 보급합니다. / 문의: 727-2032, 3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1월5일 박은종 요한 신부(40세) 2000년, 용인
- 1월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1963년, 용산

●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 직원(프로그래머) 모집

- 대상: S/W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전문대 이상 S/W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의 관련분야 유경험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 기술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신자인 경우)
- 갖추어야 할 기술: 기본 언어 구사 능력(ASP, VB, ASP.NET, C#), Data Base(MS-SQL), Java Script, VB Script, N/W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 접수: 1월20일(화)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
- 문의: 2269-0419 / E-mail: ao@seoul.catholic.or.kr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서울대교구 사무처
- 서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및 실기시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atholic.or.kr) 참조

서울대교구 청담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50대 후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방화관리자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1월17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
- 문의: 544-5625(제출서류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 통보)

교구청 기관과 단체 알림

2009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년하례식

- 대상: 본 법인 사회복지 등록시설(단체) 종사자, 지구 사회사목 회장단, 각 지역 본당 분과장 / 문의: 727-2247, 2237
- 때, 곳: 1월8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월례특강 및 미사

- 주제: 정신질환의 이해 / 강사: 양수 교수(가톨릭대 간호대학)
- 때, 곳: 1월6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 사목센터 1층 중 교육관(회비 없음) / 문의: 727-2071(www.ihome.or.kr) 가정사목부

전대사를 받기 위한 1일 지방 성지순례

- 때: 1월18일(일) 오전 8시40분(명동성당 집결) / 회비: 1만5천 원
- 곳: 서울지역(명동성당, 서소문, 새남터, 절두산) / 성가책 준비
- 문의: 2269-0413 순교자 현양회 사무국(선착순 전화 접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년미사

- 대상: 후원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문의: 921-5094
- 때, 곳: 1월5일(월) 오전 10시2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총구역장 피정

- 대상: 각 본당 남성·여성 총구역장 / 1월9일(금)까지 접수
- 때, 곳: 1월17일(토) 오후 1시~6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회비: 1만 원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중·고등학교 계발활동 교육자원봉사자 교육

- 대상: 초대졸 이상 교우 / 홈페이지: www.kyccs.or.kr
- 때: 1차 1월12일(월)~16일(금), 2차 1월21일(수)~23일(금)
- 곳: 역삼동 가톨릭 청소년회관 / 1월7일(수)까지 접수
- 문의: 553-7320~2 청소년국 중·고등학교 사목부(KYCCS-CA)

알림

모임

마리아 운동 다락방 모임

· 때: 1월8일(목) 오후 2시-4시
· 곳: 전진상교육관 / 문의: 019-9373-2004

삼성산 2박3일 무료피정

· 때, 곳: 1월9일(금) 18시30분-11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목상 관광 지도 피정

· 미사: 류형렬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1월5일(월)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14-B(구로)지구 성령 낮 기도회

· 내용: 말씀과 미사(강사: 이상욱) / 011-9060-7851
· 때, 곳: 1월7일(수) 13시-16시30분, 고척동성당 소성당 / 주최: 14-B(구로)지구 성령봉사회

10지구 치유 낮 기도회

· 때, 곳: 1월5일(월) 13시30분-17시, 오금동성당
· 강사: 에프렘 수녀(말씀, 치유기도, 안수 등)
· 문의: 408-5501 / 주최: 10지구 성령봉사회

선교세상과 함께 하는 음악 피정

· 강사: 이준용 신부, 선교세상(단장: 고영민)
· 때, 곳: 1월5일(월) 10시30분-16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011-661-5500, 874-6346 선교세상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 내용: 성체조배, 미사, 강의, 찬양, 공연 / 6253-3373, 019-470-2416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주최)
· 때, 곳: 1월10일(토) 15시-20시, 가톨릭대학 의학연구소 2층 대강당(대상: 대학생, 청년)

성무일도 노래연수(천미기도)

· 강사: 박윤하 / 794-6130, 031)771-6134 성모기사회
· 때: 1월12일-2월23일 매주(월) 15시-17시(6주간)
· 곳: 폰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원 화관(전철 중앙선 한남역과 6호선 한강진역에서 단국대 방향 10분)

제주 성 이시들 피정센터 '제주피정'

· 매일미사, 삼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말씀, 충고해설사, 자연과 함께, 성지순례) / 773-1455
· 때: 1월18일-20일, 2월19일-21일, 2월24일-26일, 2월28일-3월2일(2박3일 환영) / 본당, 구역방장 및 단체

13-A지구 성령기도회

· 내용: 미사와 말씀 치유 / 문의: 010-6236-4250
· 때, 곳: 매주(화) 20시-23시30분, 봉천동성당
1월(일)이동신부 1월13(화)한정신부 1월20(화)김정호신부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주말 일일피정

· 주제: 식별과 선택(선착순 70명) / 회비: 1만원
· 때: 1월10일(토) 10시-16시(미사포함) / 717-3869(중식제공)
· 교부들의 영성(김병로 신부)

오리케네스의 탈출기 설교집: 2월25일(수) 10시30분-12시30분
나사의 그레고리오의 코렐렌 설교집: 2월25일(수) 14시-16시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2박3일)

·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선착순 80명)
· 곳: 경북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지도: 최봉도 신부) / 문의: 054)971-0722, 019-613-1762

84차 1월19일(월) 21일(수) 85차 2월20일(금) 22일(일)
87차 2월27일(월) 29일(수) 89차 5월22일(금) 24일(일)

7 Habits

· 강사: 이민정 선생 외 / 문의: 019-366-9864
· 곳: 상지피정의 집(입소 9시30분, 퇴소 18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ngjiosh.com) 참조

1차 1월9일(금)-11일(일) 2박3일 초등부
2차 1월12일(월)-14일(수) 2박3일 중·고등부
3차 2월20일(금)-22일(일) 2박3일 중·고등부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4지구 봉사회 1월 피정

· 문의: 011-1746-2120, 019-332-7764

1월5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의정부성당
강사: 송정연 선교사(중식제공)
1월14일(수) 오후 8시-의일 1시, 의정부 녹양동성당
강사: 정구중(꽃뿔대 치유봉사회자)

예수마음 배움터(일산 근교) 피정

· 문의: 031)946-2337, 8(www.jesumama.org)

영성수련 피정 4박5일 1월19일-23일, 2월29일(17시30분 시작, 17시 마침)
8박9일 2월7일-15일(17시30분 시작, 17시 마침)

에니어그램 1월17일-18일, 2월21일-22일(15시30분 시작, 17시 마침)
내적생활을 돕는 대상: 수도자, 성직자, 8일 피정 하신 평신도 분
영적생활워크숍 1월30일-2월1일(14시 시작, 14시 마침)

성체현시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 때: 1월8일(목) 10시-15시30분(중식제공)
· 곳: 땅우1동성당(안수사와 미사) / 문의: 437-8984

로마서 세미나(문의: 455-8836, 017-231-1999)

· 때: 1월7일-3월25일 매주(수) 19시-21시30분
· 곳: 작은 예수회(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100미터 전방, 농협 지하) / 회비: 3만원(교재비 포함)

양업고등학교가 펼치는 신나는 겨울캠프

· 대상: 중1, 2학년 재학생(선착순 60명)
· 때: 1월19일(월)-22일(목) 3박4일
· 문의: 043)260-5076, 78(www.yangeob.hs.kr)

교육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 주제: '빛내음' 기도모임 / 010-5730-6322(sspskorea.org)
· 때, 곳: 매주(일) 19시30분, 명륜동 수녀원 본원

5지구 혼인강좌

· 때, 곳: 1월10일(토) 17시-20시, 신내동성당(전철 6호선 봉화산역 3번 출구, 덕소행 땅우역 도보, 중화초등학교 정문 앞) / 2208-2577 신내동성당

영적성장을 위한 감성수련

· 대상: 모든 교우(주제: 사랑이 두려움을 만날 때)
· 때: 1월13일-2월17일 매주(화) 13시30분-17시
· 곳: 가톨릭회관 3층강당·7층 대강당(회비: 3만원)
· 강사: 문종원 신부 / 문의: 010-3078-5249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in.com)

본도감정 관리와 사소통혼련: 1월22일-3월12일 매주(목) 10시-12시50분(8주)
전문심리치료: 개인(말안, 우울, 대인관계 부작용), 부부·가족간의 갈등 등
아동·청소년·성인 심리검사정적, 정서, 인지, 지능 등) 및 음악치료

에니어그램

· 강사: 윤엘리사벳 / 문의: 016-305-9256
· 곳: 전교 가르멜 수녀원(전철 3호선 경복궁역)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nneagram

1단계	1월10일(토)-11일(일)	토요일: 14시-18시
2단계	1월17일(토)-18일(일)	일요일: 10시-17시
3단계	2월1일(일)	

전진상 영성심리 상담소

· 문의: 726-0700(www.jjscen.or.kr)

참자아 찾기 훈련
자존감 높이기, 친밀한 인간관계, 주체성 키우기
제 37차 1월14일(수)-18일(일) 4박 5일
제 38차 2월5일(목)-8일(일) 3박 4일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나의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양육하며 그 안에 감추어진 건강한 힘을 회복하는 훈련
2월9일(월) 10시-11일(수) 17시 2박 3일

2009년도 노들담 오르프음악연구소 교육

· 곳: 노들담 교육관 3층(가회동)
· 문의: 763-2274, 010-9034-4911, 010-7392-1227

금오지도자과정 3월6일-5월20일, 9월11일-11월27일 19시-22시
토요지도자과정 2월-12월 둘째(토) 오전

단기지도자과정 1월12일-14일(3일), 6월12일-7월11일 매주(금)저녁
토요가족세미나 2월-12월 넷째(토) 오전
2월23일-27일, 7월27일-31일, 12월28일-30일 오전
에니어그램오르프교실 4월17일-7월3일, 9월18일-11월27일 오후

매종 프로젝트(탈탈 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상담 및 심리치료
조기유학, 수능 및 대입으로 인한 좌절이 심하거나 진로문제고 고민이 큰 학생 및 부모, 취업 및 진학 실패로 의욕이 저하되고 자신감을 잃은 학생 및 성인, 결혼적령기에 스트레스가 심한 성인 및 부모

전문적인 자능, 주의집중, 학습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불안 등) 평가, 결혼한족도, 적성 및 진로평가
종합심리평가

열린 학교 상담 아카데미

· 문의: 2279-5153, 4(www.lifeacademy.or.kr)

소통에니어그램 1월7일-2월4일 매주(수) 10시-19시
목요일영성수련 1월8일-2월12일 매주(목) 10시-19시
꿈 집담상담 1월10일(토)-11일(일), 오늘수련장

청소년 영성개발 1월16일(금)-18일(일), 오늘수련장
집중영성수련 1월22일(목)-25일(일), 오늘수련장
자연건강캠프 2월6일(금)-8일(일), 오늘수련장
꿈 집담상담 2월14일(토)-15일(일), 오늘수련장
주말 에니어그램 2월21일(토)-22일(일) 10시

여성연합회 원어민 교실

· 때: 월-금 10시-12시, 14시30분-16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512호(총 9개반 중 택일) / 778-7543

평생교육원 몬테소리교사 교육과정

· 개강: 3월13일(금)-1년 과정 / 2월20일(금)까지 접수
· 곳: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7층(선착순마감)
· 문의: 705-8218, 8718(http://sccc.sogang.ac.kr)

성서학교 성서 인물 세미나

· 성경 말씀 안에서 치유와 삶의 변화를 체험함
· 때, 곳: 매주(월)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회비 없음) / 강사: 김명희, 이해봉
· 문의: 011-778-0220, 011-399-3993 작은 예수회

탈리다콰센터 행복심리문화강좌

· 행복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수 있는 강좌(수시모집) / 742-9471, 3 탈리다콰센터
· 때: 매주(수) 10시30분-11시30분 / 개강: 1월7일(수)

제16차 어린이 성령학교

· 대상: 현재 초등 3-6학년(지도: 전제덕 신부)
· 회비: 4만원(교재·간식·점심 포함)
· 준비물: 필기도구, 목구, 미사책, 개인물통
· 개차: 국민은행 404601-01-177300 김필남
· 때: 1월19일(월) 10시-20일(화) 15시(1박2일)
· 곳: 성령 쇄신 봉사회관 3층(신림동) /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에서 5528·6512·504·5535번 타고 신림8동 사무소 하차
· 문의: 866-6345, 010-8332-7334, 010-6254-9549

작은 예수회 영어 성경 강좌

· 회비: 월 2만5천원 / 010-7764-3885, 011-9942-3535
· 곳: 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지하

요한복음	매주(화) 오후 8시-10시까지
로마서	매주(금) 오후 8시-10시까지

베네딕도 성서학교 개강

· 때: 오전 10시-12시20분(15주간) / 회비: 7만원
· 문의: 920-9667(www.benedict.or.kr)

1학년 모세오경 3월6일(금) 2학년 예언서 3월5일(목)
3학년 마르코복음 3월4일(수) 4학년 바오로서간 3월3일(화)

성녀 대 데레사 묵상기도학교

· 대상: 교묘 안에서 '하느님과 우정 어린 사랑'을 원하는 교우(2년 과정) / 회비: 8만원(한 학기)
· 문의: 737-7764 전교 가르멜 수녀회 영성의 집

매일 첫째·셋째 월요일	3월2일(월) 오전 10시(개강)
매일 첫째·셋째 화요일	3월3일(화) 오후 8시(개강)
매일 첫째·셋째 목요일	3월5일(목) 오전 10시(개강)

2월 ME 서울협의회 주말(문의: 511-9901,2)

· 주제: 성숙한 혼인 생활을 위해(결혼 5년 이상부부)
2월13일-15일 서울105차(중서울66) 프란치스코 피정의집(한남동)
2월20일-22일 서울106차(서서울80) 성베네딕도 피정의집(강중동)
2월27일-3월1일 서울107차(동서울88) 성베네딕도 피정의집(강중동)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영정 에니어그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내적영정 1월10일(토)-11일(일) 14시-19시, 연구소 교육관
기본 1단계 1월15일(목)-16일(금) 10시-16시, 명동성당 교육관 303호
내적영정 기본 2단계 1월19일(일)-20일(화) 10시-16시, 연구소 교육관

성서 40주간 개강(가톨릭 성서모임)

· 회비: 3만원(교재비 별도) / 수시로 수강신청 가능

가톨릭 성서모임 본부(혹석동 성모교육원)	3월16일부터 매주(수) 10시-12시30분 3월18일부터 매주(수) 20시-22시	824-4363, 5
교육내용: 오경 및 역사서		
보라매 성서모임	3월6일부터 매주(수) 10시-12시30분	011-1709-7236

그룹 성경공부 모집: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본부 3월17일(화) 오전 10시-20시
(혹석동 성모교육원) 3월19일(금) 오전 10시-20시
824-4363, 5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문의: 834-7233, 4)

대상 화·목 15시-15시50분(초등 1-3학년)
중급 화·목 16시-17시20분(초등 2-5학년)
상급 화·목 17시-16시50분(초등 3-6학년)

대상 화·목 15시-15시50분(초등 1-3학년)
중급 화·목 16시-17시20분(초등 2-5학년)
상급 화·목 17시-16시50분(초등 3-6학년)

교육기간 2009년 3월2일-2010년 2월
교육과목 영어교육, 유아교육, 연계수업

교재 및 통화를 활용한 Game, Role play, Free talking 프로그램

알림

평화심리상담소 학습전략 및 성취

· 대상: 초등 입학전 아동부터 고등학생(목토)
· 내용: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익힘 / 문의: 775-4831, 2 평화심리상담소
가톨릭 목조각 '기초에서 작품까지'
· 내용: 성화, 성구, 성모 마리아, 십자고상 등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오후반) · 19시-21시30분(야간반), 청담동성당(주최) 지하 목공예교실
· 문의: 3446-1544(http://cafe.naver.com/ecodiy)

종민동 약현성당 제1기 미사학교 개강

· 주제: 미사에 제대로 참여하는 방법(회비: 3만원)
· 교재: 미사의 소프트웨어(정훈 신부 저자) / 362-1891
· 때, 곳: 2월6일-4월3일 매주(금) 오후 7시30분, 종민동 약현성당(9주 과정) / 강사: 정훈 신부
예수회 성경대학 1학기 개강

·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8만원(한 학기)
· 때: 3월-6월 둘째·넷째(수) 오후 2시-4시30분
·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개인접 지참)
· 문의: 718-3896, 7 후원회(선착순 마감)

모집

서울가톨릭간병인회 '간병인 양성 교육 및 모집'

· 때, 곳: 1월13일(화)-15일(목)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205-1호 / 928-7185(선착순 30명, 환불 안됨)
· 회비: 7만원 / 우리은행 1005-701-131505 (재)천주교

여성학교 한빛한림학교 무료교육생 모집

· 내용: 중·고등학교 전과정 무료교육(국어·수학·영어·음악과목 자원봉사자도 모집함) / 2월20까지 접수
· 때: 매주(월-금) 오전 9시30분-오후 2시
· 문의: 2690-8762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카리따스 아동발달·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모집

· 대상: 만 3세(지역·행동·자폐성 장애아동 및 청소년) / 프로그램: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특수체육, 놀이치료 (이용시간: 월-금 9시-18시30분)
· 문의: 423-7806, 7 잠실종합사회복지관(조인영 수녀)

2009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편입생 모집

· 모집인원: 회화과, 환경조각과 총 14명(학사 편입 5명 포함) / 접수: 1월20일(화)-22일(목)
· 문의: 032)830-7000-2(www.iccu.ac.kr) 송도 국제도시 캠퍼스 / 인터넷접수: www.uway.com

2009년 전기(추가)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부서: 행정대학원, 문화여성대학원, 경영대학원 / 문의: 2164-4856-8 부친 성심교정
· 모집기간: 1월5일(월)-9일(금) / 우편접수 가능
· 수업시간: 18시30분-21시40분(www.cuk.ac.kr)

가톨릭 신자를 위한 최고의 영성·경영 교육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가톨릭경영사과제 제 12기 모집

· 대상: 천주교 신자로서 국·공립기관 및 기업체 대표인원, 군장성, 국회의원,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수도자로서 경영 및 영성교육이 필요하신 분
· 수업: 3월 말-11월(7·8월 방학) 매주(목) 저녁
· 문의: 705-8030(http://gbiz.sogang.ac.kr)

이침 무료 체험 및 봉사단 모집

· 건강한 삶을 위한 귀 건강법을 쉽게 배워서 가족 건강도 지키고, 해외 이민, 여행, 선교와 봉사활동에 활용(입문 5주 / 회비: 10만원) / 010-5705-2277

매주(수)	오전 2시, 용산성당 교육관 206호
매주(금)	오전 10시30분, 역삼문화원 한림원

2009년 트리니타스 교회음악원 수강생 모집

· 개강: 1월 셋째주 / 문의: 336-3170, 011-721-2170

합창 지휘법	매주(수) 10시-13시	초·중급과정
성악교실	매주(화) 14시(낮반), 20시(저녁반)	
성악실기	개인레슨, 시간협의	
오르간반주법	매주(월) 오후, 매주(수) 10시-22시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1. 11. 14시	성북동 수녀원	011-9799-8790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평신도 선교사)	1. 11. 14시	평신도 선교사의 집	929-4841
성심 수녀회	1. 18. 13시30분-18시	원효로 청원소(미사있음)	010-9562-3339

아도라레 찬양무용단 정단원 모집

· 대상: 무용 전공자 / 문의: 017-719-6260 성 바오로 수도회 아도라레 찬양무용단(전철 독립문역 근처)

청소년 자원 봉사 모집

· 대상: 중1-고2 까지 / 문의: 926-3440 성 빈센트 청소년회(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 6번 출구)
· 때, 곳: 1월11일(일) 13시, 성 빈센트 청소년 열린터

성모자애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 모집

· 교사: 유치원 2급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취득 예정자) / 어린이: 만 0세-만 5세 아동(24시간 운영)
· 문의: 354-1400, 359-1933(전철 3·6호선 연신내역)

미국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 성소자 모집

· 대상: 고졸이상, 18세-40세 미만의 미혼여성
· 이민사회에서 함께 봉사할 수도 성소자를 찾음
· 문의: 1-301-947-1955 수련소, 1-301-236-4009 본원

청소년의 영적 성숙과 세상의 생명·평화를 지향하는 하늘씨앗살이 학교 신입생 모집

· 대상: 초등 6학년-중 3학년(생보자 학비 면제, 저소득층 자녀 우선) / 문의: 031)997-4516
· 접수: 1월12일(월)-21(수) 18시(주최: 새샘터 청소년 공동체) / 홈페이지(www.sesaem.net) 참조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신입생 모집

· 대상: 만 18세 이상 세례받은 평신도·수도자(학력 제한 없음) / 문의: 745-8339(직), 747-8501-5 (교과총괄) / 문의: 745-8339(직), 747-8501-5 (교과총괄)

2009년 신앙교육원 제3기 신입생 모집(일상분원)

· 과정: 2년제 4학기 매주(수·금) 오후 2시-4시
· 과목: 신구약 성경 및 신학 일반(그리스도론, 전례학 등 26과목) / 우편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10일(월)-2월13일(금)
· 문의: 031)837-4898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수원가톨릭대학교 부설 하상신학원 신입생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평신도 및 수도자(졸업 시 교구장 명의의 '선교사 및 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 내용: 평신도 및 수도자를 위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복음화 사업에 투신할 참된 봉사자를 양성하는 하상신학원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여 러분을 초대함(강남에서 40분 거리에 있음)
· 인원: 60명(2년 과정) / 수업: 13시30분-17시(주 5일)
· 전형일: 1월22일(목) 10시(교리시험 및 면접)
· 접수: 1월12일(월)-16(금) / 문의: 031)290-8898

2009학년도 전기 2차 가톨릭 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석사, 특별과정) 모집

· 원서교부 및 접수: 1월5일(월)-9일(금) / 393-2213-5
· 홈페이지(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참조

석사과정(교회음악과)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전공불문)
성음악이론(특별과정)	교회음악에 관심 있는 분(학력제한 없음)

· 때, 곳: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 서강대 이나시오관 성당 / 705-8163 한국 CLC(회비: 10만원)

3월5일, 12일 식별(제상이라는 성서)

1월8일	예수는 누구인가(강생을 중심으로)
1월15일	믿는다는 것
1월22일	기도란 무엇인가
1월29일, 2월5·12일	묵상 1.2 / 관상(성서가 나를 읽기)
2월19일	원리와 기초(인간존재의 목적)
2월26일	성찰(나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
3월5일, 12일	식별(제상이라는 성서)

미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레미사, 성체조배

· 기도교육, 미사(김덕근 신부), 성체조배 / 773-3030
· 때, 곳: 1월8일(목) 14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25주년 창립 미사

· 때: 1월12일(월) 오후 2시
· 곳: 명동 코스트홀 / 문의: 775-9052

서소문 순교성지 전대사 미사

· 때: (일) 15시, (화-토) 10시 / 문의: 312-5220
· 곳: 중립동성당 내 서소문 순교자기념관 성당

신리성지 순교자와 함께하는 미사

· 때, 곳: 1월8일(목) 10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특강·미사: 김성태 신부) / 3789-1359, 041)363-1359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 자녀들 군대에 보낸 부모님과 함께 입대 자녀와 회원을 위한 미사 / 문의: 776-0457

· 때, 곳: 1월5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위령미사

· 후원회 미사: 1월8일(목) 오전 11시
· 위령 미사: 1월29일(목) 오전 11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74-8025

살레시오 관상기도와 미사, 영성 강좌, 안수

· 지도: 김보록 신부(대상: 누구나 환영)
· 때, 곳: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 까리따스 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미터 우측) / 문의: 848-9932, 011-711-9928

서울대교구 다락방기도와 성모신심미사

· 미사: 오태순 신부 / 017-321-1247 다락방·봉사회
· 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목주 준비

· 때, 곳: 1월10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꽃봉원 및 스카폴라 봉헌식 있음)

성 마리아와 열두 사람 공동체 미사 및 영성수련의 방

· 문의: 747-3217, 홈페이지(www.sm12.org) 참조

서울 이브리함의집 미사	매일 둘째 주(화) 14시 성삼일 피정
기명 성마리아은둔소 피정	매일 셋째 주(목·금·토)

안내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공동체)

· 여성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 문의: 485-8744, 016-458-9310

치유예술 영성심리상담소

· 담당: 김 A. 클라라 수녀(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 개인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심상치료(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 707-5544, 0109171-2583

청소년의 햇살 학부모 상담 전화

· 청소년 자녀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 744-0841(www.hatsal.or.kr)
· 시간: 매주(월-금) 10시-16시(공휴일 휴무)

여대생 기숙사

· 대상: 재학생인 여대생, 대학원생(종교 무관)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 국민대학교 건너편
· 문의: 911-7580(www.rcm1892.net)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이침 베네딕도 피정집

· 개인 및 소그룹 피정과 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휴식공간(가족피정도 가능, 하루피정은 협의 하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 / 011-306-3403

한국 가톨릭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 지휘: 이상철 신부(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
· 연주곡: 모차르트 레퀴엠(예상을 떠난 이를 위한 미사곡)
· 때, 곳: 1월13일(화)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및 예매: 1577-3217 한국가톨릭문화원 사무국, 인터넷파크

· 공연: 1월13일(화) 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및 예매: 1577-3217 한국가톨릭문화원 사무국, 인터넷파크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팩스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고 전화 접수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샬트르성모모 수녀회(서울관구)	1. 11. 14시-18시30분	명동성당 뒤 본원	010-3227-9446
예수마리아성심전교수녀회	1. 11. 14시	수녀회 본원	3706-3233
성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사도회	1. 11. 14시	하비에르 국제 학교내	019-360-5649
한국순교복자벨비아수녀회	1. 11. 14시	부산 본원	582-4997

문화마당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리 길잡이



미국 구속주회 엮음 | 오영민 옮김 | 성바오로 | 192쪽 | 6천 원
가톨릭교회의 기본 교리를 고찰하고 그것들을 현 시대에 맞게 설명한 책이다. 창세기에서 묵시록까지의 진리들을 현대의 언어와 학문에 의해 설명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소곤 소곤 이걸 알아 두세요!



장재봉 지음 | 천주교 부산교구 | 120쪽 | 1만 원(2권 1세트)
교리 및 전례 상식을 질문과 답변 형식의 짧은 칼럼으로 표현했다. 부산주보에 연재하는 '소곤소곤 이걸 알아 두세요'를 엮은 책으로 '소곤소곤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와 '소곤소곤 이렇게 설명하세요'로 구성되어 있다. / 구입문의: 051)629-8750

통하는 기도



차동엽 지음 | 위즈앤비즈 | 368쪽 | 1만2천 원
주님의 기도에서 건져올린 24가지 기도 비법을 소개하는 기도 안내서로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 쉽게 표현했다. 주님의 기도 각 구절에 해당하는 원문의 전통적인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현대인의 삶과 연결시켰다. / 구입문의: 031)985-2809

빛의 삶을 향하여



최남순 지음 | 사람과사람 | 133쪽 | 7천 원
'길리암-바레찌 중후군'이란 중병에 걸려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장애인으로 투병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최남순 수녀의 시집이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그녀의 맑고 순정한 혼의 울림을 접할 수 있다. / 구입문의: 335-3905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진천 역주 | 기쁜소식 | 120쪽 | 7천 원
베론성지 교회사 연구 자료집 2번째 권으로 200년 전 제천 베론의 작은 토굴 속에서 박해로 무너져 가는 조선 교회의 재건과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 쓰여진 황사영 '백서'의 주석본이다. / 구입문의: 762-1194

은빛 여정(구약성경 3 - 욥기와 코헬렛)



김건태 성경해설 | 서현승 그림 | 생활성서 | 96쪽 | 1만1천 원
어르신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로 구약 4권, 신약 4권 모두 8권으로 이뤄져 있다. 한 학기에 1권씩 이수해 4년 동안 신구약 전체를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출간한 책은 '욥기와 코헬렛'이다.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 입장권: 성인 1만2천 원, 초·중·고생 9천 원, 유아 7천 원
· 예약 및 문의: 1544-4594(www.korearubens.co.kr)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3월13일(금)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열린다(1월31일까지만 할인함). '플란더스의 개'로 친숙한 바로크 미술의 거장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 19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유희작품 총 75점을 전시한다. 루벤스의 '발리첼라의 성모상', 반다이크의 '성모승천' 등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1월31일까지 관람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4천 원 할인(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 입장권: 10·8·5·3만 원 / 공연시간: 1월15일(목) 오후 8시·성남아트센터, 21일(수) 오후 8시·예술의전당, 22일(목) 오후 7시30분·세종문화회관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의 자랑 '빈 소년 합창단' 음악회를 갖는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년 음악회로 중세 교회 음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민요와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성당에서 100인 이상 단체 관람시 30% 할인하고 성당에 방문해 성가곡을 연주해 준다. / 예매 및 문의: 1577-5266

10% 할인 금액으로 전화예매 후 티켓 수령시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를 지참하면 할인됨(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연극 '쉬어 매드니스'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501-7888
· 공연시간: 화·목·금 20시 / 수 15시·20시 / 주말·공휴일 15시·19시



미용실을 배경으로 관객이 그날의 범인을 찾고 엔딩을 결정하는 독특한 형식의 관객 참여형 추리극이다. 배우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관객과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으려는 배우들의 공방전이 재미를 더한다. 미국에서 29년 간 공연중인 연극으로 3월31일(화)까지 대학로 예술마당 2관에서 공연한다.

3월까지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

· 입장권: 전석 3만 원 | 예매 및 문의: 2278-5741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18시 / 일 15시



뮤지컬 '한밤의 세레나데'가 1월18일(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나무와 물에서 앵콜 공연을 한다. 순댓국집 모녀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어머니와 딸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담아 냈다. 2007 한국뮤지컬대상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연출상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이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 가능).